서울주보

제2433호
2023년 2월 5일(가해)

연중 제5주일

발 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정순택
편 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 쇄 가톨릭출판사
전 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eoul_jubo
카카오채널 https://pf.kakao.com/_xhGxjBxb
유튜브 www.youtube.com/@catholictube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나를 따르라 | 이남규 루카(1931-1993), 46.3x147cm, 레드케임 스테인드글라스, 1988, 수원교구 성요한성당

입 당 송 | 시편 95(94),6-7 참조

어서 와 하느님께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네.

제1독서 | 이사 58,7-10

화 답 송 | 시편 112(111),4-5.6-7.8ㄱ과 9(◎ 4ㄱ)

◎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그 빛은 너그럽고 자비로우며 의롭다네. 잘되리라, 후하게 꾸어 주고, 자기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이! ◎

○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리니, 영원히 의인으로 기억되리라. 나쁜 소식에도 그는 겁내지 않고, 그 마음 굳게 주님을 신뢰하네. ◎

○ 그 마음 굳세어 두려워하지 않네. 가난한 이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길이 이어지고, 그의 뿔은 영광 속에 높이 들리리라. ◎

제2독서 | 1코린 2,1-5

복음환호송 | 요한 8,12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복 음 | 마태 5,13-16

영성체송 | 시편 107(106),8-9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 셨네.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라디오 FM 105.3MHz /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skylife 184번 / GENIE TV 231번 / Btv 297번 / U+tv 274번

생명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 서울대교구장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복음의 앞 문맥을 살펴보면, 산상수훈 담화문을 시작하는 '참행복(진복팔단)'에 바로 뒤이어 나오는 구절들이 오늘의 복음 구절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행복선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 하신 다음에 바로 오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이 이어지기에, 여기에서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참행복의 정신으로 살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금과 빛은 일상생활에서 보거나 성경의 전통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은유입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낼 때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첨가물일 뿐만 아니라, 염장(鹽藏)을 통해 식료품을 오래 저장하는 데에 필수적인 물품이었습니다. '빛'은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막론하고 익숙하고 중요한 은유인데, 신약성경이 아직 쓰여지기 전인 예수님 당대에는 유일한 성경이었던 구약성경에서는 '빛'이 주로 '하느님, 메시아, 하느님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토라(율법), 성전, 예루살렘' 등을 가리키는 은유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이들'을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중인 당대의 유다인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너희는'이라는 희랍어 원문 표현에서 강조법을 써서 "(예수님 당신을 따르는) 바로 너희 자신이 빛과 소금"이라는 뜻으로 '너희'를 강조하여 표현하십니다. 뒤이어지는 산상수훈 담화문(마태 5,17-7,12)의 가르침들이 말하자면, 어떻게 살아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모습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 담화문 대신에, '빛'을 모티브로 오늘 제1독서를 복음과 연결지어 읽어 보면, "굶주린 이에게 네 양식을 내어 주고, 고생하는 이의 넋을 흡족하게 해 준다면, 네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고, 암흑이 너에게는 대낮처럼 되리라." 곧,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는 길은, '굶주린 이에게 양식을 내어 주고, 고생하는 이의 넋을 흡족하게 해 주는 데'에 있다고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바오로 사도가 '뛰어난 말이나 (인간의) 지혜로 하느님의 신비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뛰어난 언변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힘을 드러내는 것으로 복음 선포하셨듯이(제2독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화려함을 자랑하기 바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적으로) 뛰어난 능력이나 인간적인 드러남'으로써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이웃들에게 애덕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라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자신이 이웃에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촉구하십니다.

작품 설명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 5,16)

스테인드글라스는 성전의 내부를 장식하는 것을 뛰어넘어 빛의 예술로 인간 정신을 담아냅니다. 인간의 아름다운 마음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본연의 근원에 도달하려는 작가의 노력은 시간을 넘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줍니다. "제가 죽는 날, 저를 내치지 마시고 어여삐 보시어 저 맨 아랫자리에서 당신을 바라볼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박정석 미카엘 | 루크글라스

아버지가 주고 가신 선물

이영준 로렌조
KBS 시사교양국 프로듀서,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 회장

3대째 이어온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유아세례를 받고 자연스레 신앙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문·출판·방송·통신 분야에서 종사하는 가톨릭 언론인과 커뮤니케이터들의 연합체인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2월 한 달간 이 자리를 통해 제 삶과 소소한 신앙 체험을 나누게 되어 기쁘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11월 15일.

저는 이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이날, 제 롤 모델이자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미카엘이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혹자는 인생에서 누구나 한번은 겪는 천붕지통(天崩之痛)이 뭐 그리 대수냐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이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늘 밝고 긍정적이셨으며 사회성도 좋으셔서 팔순을 목전에 두고서도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저는 아버지를 뵈러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와 식사하며 두런두런 이야기도 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때까지도 당장에 닥칠 아버지의 죽음은 생각도 못했지요. 이날 찍은 사진은 결국 아버지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만나고 나서 아버지는 어머니와 수원에 사는 여동생 집에 가셔서 외손주들과 즐겁게 지내고, 주일에는 동생 부부와 성당에 가셨답니다. 대영광송을 바칠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버지 얼굴이 창백해지며 "어…어…" 하시더니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성당 안이 술렁였고, 혼비백산이 된 어머니와 여동생이 의사와 간호사를 간절히 찾았답니다. 마침 의사 선생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아버지는 미동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다급한 구호 요청에 미사는 멈추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인근 종합병원으로 가신 아버지는 미처 손 써볼 겨를도 없이 황망히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복 받으셨다고 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참으로 미카엘을 사랑하셨나 보다. 어찌 성당에서 데리고 가실 생각을 하셨을까?" 그날부터 저는 주일미사를 드릴 때마다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제대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버지의 온화한 미소가 주님의 얼굴과 겹쳐 보입니다. 아버지는 떠나면서도 제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에 함께하지 못하고 손 한번 잡아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큰아들은 미사를 드릴 때마다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좀 더 지혜롭고 겸손하게 그리고 용기 있고 열정을 다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아버지, 다시 뵐 때까지 평안하세요."

큰아들 로렌조 올림.

한컷으로 보는 **교회 가르침**

"(그리스도께서) 당신 말씀 안에 현존하시어,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당신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 베네딕도 16세 교황 회칙 <주님의 말씀> 52항 -

그림 | **송현철** 안토니오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 단체를 후원합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취약계층지원사업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

전복실(가명, 91세) 할머님은 오래된 상가 구석의 허름한 쪽방에서 삽니다. 왕래가 끊긴 지 오래된 아들이 어쨌든 서류상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30만원의 노령연금만으로 겨우 끼니를 이어갑니다. 고장난 보일러와 누수가 심한 바닥 배관 때문에 난방이 되지 않는데도, 무상으로 사는 처지라 고쳐달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집안 곳곳 피어있는 곰팡이, 온기라고는 없는 방, 세면대 없는 열악한 화장실까지…. 무표정한 할머님의 얼굴 위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편함과 힘든 생활의 그늘이 드리웁니다. 오늘도 전기장판에 의지한 채 문 밖의 지나가는 사람들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앉아계신 할머님에게 이 겨울은 지독히도 춥습니다.

불우한 가정사로 인해 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후 배달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던 박진우(가명, 27세) 씨는 야간에 배달 중 빗길 오토바이 사고로 장애를 얻었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장애로 생계 수단까지 잃게 되자, 그는 세상을 비관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서류상 가족이 있고, 젊다는 이유로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자 삶의 희망을 놓아버린 겁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살아남아야 했던 청년 박진우 씨의 손을 잡아주는 곳은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고 월세가 연체되어 오갈 곳이 없게 된 박루시아(42세) 씨를 돕게 된 것을 계기로, 공공 및 민간 복지 체계에서 소외되어 주거와 생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복실 할머님과 박진우 씨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도움을 받아 삶의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들이 계속 도착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올해부터는 외부 단체의 후원이 중단되어 이 분들을 위한 지원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간추린 사회교리〉 182항을 보면 그리스도교 사랑을 실천할 때,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긴급한 요구와 특수한 상황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종교, 인종, 국적 등 그 무엇에도 차별받지 않고, 누군가에게 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이고, 소외되지 않아야 할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들여다보고, 필요한 친절과 도움을 제공하는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 세상을 그나마 돌아가게 하는 것은 원칙이나 기준, 몇 장의 증명서가 아닙니다. 전복실 할머님과 박진우 씨 같은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고 함께하는 이웃들입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따뜻한 이웃이 되고자 합니다. 모든 이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와 함께해 주세요!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004-429455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023년 2월 4일~3월 3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취약계층지원사업'**을 위해 씁니다.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s://cc.catholic.or.kr) – '사랑의 손길'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_ ① **인터넷 신청:** www.caritasseoul.or.kr 〉 후원안내 〉 사랑의 손길 기부금 영수증 신청 ② **전화 신청:** 02)727-2256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도들의 기쁨과 삶을 담은 사도행전 읽기

사도행전의 주요 특징들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 | 사목국 성서못자리 담당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 이어지는 30여 년간의 연대기적 틀 안에서, 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해온 과정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이야기를 전해 주면서, 루카는 몇 가지 특징적인 요소들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고, 두 번째는 선포문이며, 세 번째는 구원에 참여하는 대상의 확장입니다.

첫째, 사도행전은 '성령의 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교회의 삶 안에서 함께 하신 성령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즉 복음 선포의 확장은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사도들의 복음 선포가 시작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세례는 물로만 이루어진 세례가 아닌 성령의 세례임이 드러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 선포의 새로운 영역이 열립니다. 또한 최초의 공의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사도 회의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성령은 박해를 견디는 힘을 부여해 주면서 바오로의 험난한 선교 여행을 인도합니다. 이렇듯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기를 이끌어 가면서 사도들과 함께 계신 분이 바로 성령이심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둘째, 루카는 베드로와 바오로의 설교를 통해 신앙의 핵심적 요소들(케리그마)을 선포합니다.(안병철, 『성서 못자리 그룹공부 교재-사도행전』, 기쁜소식, 20~21쪽 참조) 이는 총 6가지로 축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구약에서 예언된 언약이 성취되어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둘째, 예언자들의 예언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의 직무,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루신 계획에 맞게 성취되었다. 셋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오른편으로 들어 올려지시어 주님이 되셨다. 넷째, 하느님 아버지에게 성령의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교회에 성령을 보내셨으며,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는 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는 표징이다. 다섯째, 그리스도께서는 종말에 다시 오셔서 메시아 시대를 완성하실 것이다. 여섯째,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듣는 자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하면 용서와 성령의 선물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신앙의 핵심적 요소들은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 고백이며, 교회가 무엇을 믿는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루카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인종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모든 이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구원의 보편주의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특히 코르넬리우스 사건(사도 10장)을 통해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유다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 마련된 은총임이 드러납니다. 몇몇 사람들은 자신들이 특별해지고 싶고 편해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하는 편협한 신앙관을 지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편협한 신앙관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구원의 은총으로 이끄는 보편적 신앙관임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나만이 아닌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적 구원입니다.

과학칼럼

전직 과학도의 "철학사 수업"

조동원 안토니오 신부 | 가톨릭대학교성신교정 교수

저는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신학생으로서 이 학교에서 7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고, 바로 그 모교(alma mater)로 돌아와 학생들에게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은 신학만이 아니라 철학도 상당히 심도 있게 배웁니다. 첫 2년의 커리큘럼은 거의 철학 과목으로 짜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고 저희 때도 그러했습니다만, 많은 학생이 철학을 배울 때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신학도인데 왜 이렇게까지 철학을 배워야 하냐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저도 처음에는 철학 과목이 낯설었습니다. 특히 고대철학사 수업 때 첫 부분에 나오는 자연철학자들, 곧 탈레스를 필두로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등, 이름만 들어도 현기증이 날 것 같은 학자들을 배우며, 도대체 이 이름 긴 사람들 각자가 말했던 황당한(?) 이론들을 왜 배우는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나름 일반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제게, 만물의 근원(archē)을 물, 불, 공기, 흙, 사랑/미움 등으로 설명하는 고대 자연철학자들의 이야기는 그저 어린아이 소꿉장난같이 들렸습니다.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들으며, '제법 현실에 가깝기는 하지만 그 정교함은 돌턴 할아버지의 원자론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구나.'라는, 어찌 보면 현대 과학을 배운 사람의 교만함이 잔뜩 묻어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몇 주 후, 고대철학사 수업은 저 유명한 소크라테스에 대한 내용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혼잣말로 심드렁하게 "아하,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고 했던 그 양반!" 하고 뇌이던 저는, 소크라테스의 중요성은 바로 그가 보편적인 진리, 보편적인 선(善)을 추구했다는 데 있다는 교수 신부님의 설명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또한 보편적인 옳음(眞)과 선함(善)을 얻기 위해 이 위대한 철학자는 가장 먼저 어떤 개념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定義, definition)를 내리려 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점이야말로 제가 자연과학에 매료된 곳인 동시에, 그러나 결국은 '과학 신봉자'가 아닌 가톨릭 신앙과 사제의 길을 택하게 된 결정적인 갈림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철학과 과학은 하늘과 땅이 먼 만큼이나 서로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연과학은 바로 철학의 품에서 탄생했고, 역으로 철학은 '자연과학적인' 관심사에서 그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철학사 수업이, 현대 과학의 세례를 받은 우리 눈에 황당하게만 보이는 '자연철학자들'의 이야기에서 시작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저작 하나 남기지 않은 소크라테스가 그토록 중요하고 위대한 이유는, 그가 바로 보편적인 앎과 선함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고, 그것이 이후 철학과 과학의 역사를 결정지었기 때문입니다. 철학과 자연과학은 모두 보편성에 대한 추구에서 시작되고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철학과 과학은 서로 결별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연재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이 '결별'은, 신앙과 과학 사이의 오랜 오해와 '갈등'의 역사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2022년 감독_루카 구아다니노

영화칼럼

영화 '본즈 앤 올'

사랑 깊은 펠리칸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 | 행당동성당 보좌신부

미사 중에 사제가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여 재현함으로써 제대 위에 놓인 빵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축성됩니다. 이렇게 축성된 빵과 포도주의 외적인 형태는 그대로 남지만, 그 실체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성체'와 '성혈'로 변화된다고 교회는 가르치는데, 이를 '실체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예식 중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신자들이 나누어 먹고 마신다는 이유로 식인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에서 드러나듯 교회는 실체변화를 통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끊임없이 나누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먹을 것이 떨어지면 자신의 가슴살을 떼어 새끼에게 먹인다는 어미 펠리칸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카미유 드 안젤리스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영화 〈본즈 앤 올〉은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오해받았던 '카니발리즘(cannibalism, 동족 포식)'을 표방한 작품입니다. 영화는 주인공 매런(테일러 러셀 분)을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사람을 먹는 '이터(eater)'들, 즉 본능적으로 식인에 대한 허기를 느끼는 존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매런은 선천적으로 식인의 욕구를 지녔습니다. 매런의 아빠는 그런 딸의 욕구를 억누르고 딸이 저지른 사고를 수습하는 조력자였지만, 결국 버티지 못하고 매런의 곁을 떠납니다. 그렇게 홀로 남게 된 매런은 오래전 자신을 떠난 엄마를 찾아 길을 나서게 됩니다.
엄마를 찾아 나서는 여정 중 매런은 자신과 같은 이터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리(티모시 샬라메 분)는 매런에게 특별한 존재로 다가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매런과 리는 누군가를 해치지 않고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삶, 정처 없이 떠돌지 않아도 안심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매런과 리에게 찾아온 영화 속 결말은 영화 〈본즈 앤 올〉이 카니발리즘을 표방한 이유를 상기시켜줍니다. 더불어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나눈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살과 피라고 하셨던 이유를 끊임없이 마음에 새기듯, 극적인 순간에 다다른 리가 매런을 향해 던진 '간곡한 부탁'을 관객으로 하여금 영화가 끝나도 계속해서 곱씹게 합니다. 이처럼 영화 〈본즈 앤 올〉은 마치 새끼들을 향한 어미 펠리칸의 희생적인 사랑에 빗대듯이 극 중 매런과 리가 함께 하는 마지막 순간을 처절하고도 아름답게 그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사치처럼 여기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간의 욕망에 집착하고 피상적인 속성에 의존하는 사랑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처럼 여기며 그 흐름에 전적으로 순응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본즈 앤 올〉은, 이천 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했던 것처럼, 살과 피를 내어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우고 싶어 합니다.

2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본당들'

본당들이 친교를 중심으로 하여 더욱더 신앙과 형제애 그리고 가장 가난한 이들을 향한 환대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2월 11일(토)은 '세계 병자의 날'입니다

세계 병자의 날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교회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74년 2월 12일 김선영 요셉 신부(76세)
- 2016년 2월 11일 강대호 스테파노 신부(55세)

가톨릭 교리 상식! 서울주보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참여 기간 | 2월 19일(주일)까지(당첨자 발표: 2월 28일 개별 연락)
참여 방법 | ① 서울주보 인스타그램 **접속**(www.instagram.com/seoul_jubo) ② 서울주보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한다. ③ 이벤트 게시물에 **궁금했던 교리, 교회 상식에 관한 댓글을** 남긴다.

– 참여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30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

교구청 알림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2월9일(목) 오후 2시~3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문의:** 02)727-2407, 2409
집전: 임창재 신부(대만 선교)

가톨릭 시니어 후원회 2월 월례미사
성가와 함께하는 찬양 미사
때, 곳: 2월7일(화) 오후 2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미사 주례: 노인사목팀 담당 사제
문의: 02)727-2385, 6 노인사목팀

시니어카리타스합창단 남성단원 추가모집
대상: 성가대 경력이 있는 만 65세~75세 남성
오디션: 매월 첫째주(금) 오후 1시, 명동대성당 범우관 7층 701호(여성단원은 모집 완료됨)
성가연습: 매월 첫째주~넷째주 (금) 13시30분~15시30분 / **문의:** 010-3323-3777

'슬픔 속 희망찾기' 자살유가족 프로그램 안내
1) '슬픔 속 희망찾기' 2월 유가족 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곳: 2월18일 매월 세번째(토) 10시(묵주기도), 10시30분(미사 봉헌), 가톨릭회관 1층 경당
집전: 차바우나 신부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2) '슬픔 속 희망찾기' 유가족 자조모임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들을 위한 지지집단
프로그램: 독서모임, 그림그리기모임, 글쓰기 모임, 성경묵상모임, 명상 / **신청기한:** 2월28일까지
프로그램 시간: 홈페이지(3079.or.kr)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전화 접수(02-727-2495)
총진행일정: 3월~12월까지(매월 1회, 총 10번 모임 예정)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창의적 체험활동 I-Brand반(가톨릭 청소년 인성교육) 모집
대상: 서울 시내 중 · 고등학교 선생님
내용: 청소년국 학교사목부에서는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I-Brand반을 개발 · 운영하고 있습니다 I-Brand 반은 중고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진행되며, 강사는 학교사목부 자체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봉사자로 파견됩니다 I-Brand반 운영을 원하시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수업주제: 생명존중, 자아실현, 문화, 지구시민, 심성계발, 나눔실천 등 / 2월9일(수)부터 선착순 접수
문의: 02)553-7320~2 학교사목부(일, 월 휴무) / www.kycs.or.kr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김초롱 · 진소라 2인전: 1전시실
이콘연구소 18기 졸업전: 2전시실
예림전: 3전시실
전시일정: 2월8일(수)~16일(목)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북녘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355차 미사 2월7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서울대교구 재령 본당, 서흥 본당
미사 후에 한반도 평화와 북녘본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명동 직장인 금요미사 안내
1) 명동 직장인 금요미사 안내
때, 곳: 매주(금) 12시15분,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문의:** 02)727-2078 직장사목팀
2) 직장사목팀 성가단 AESTUS CHOIR 단원모집
대상: 20~40대 직장인 가톨릭 신자
모집인원: 각 파트 00명 / **문의:** 010-5760-6638 단장
연습: 매주(금) 19시30분 / **미사:** 둘째주(금) 20시, 명동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생명위원회
1) 2월 생명을 위한 월례미사
때, 곳: 2월6일(월) 11시, 명동대성당 내 파밀리아채플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2) 자연주기법(NFP) 강사 양성 워크숍
대상: 자연주기법을 배우고 강사로 활동하실 분(45세 미만인 여성) / **회비:** 개인 5만원(교재 포함)
때: 3월4일~4월15일(3월4일 · 3월18일 · 4월1일 · 4월15일) 격주(토) 오후 2시~5시(4주간)
곳: 서울대교구청 생명위원회 5층 교육실
마감: 2월24일(금) 17시
문의(신청): 02)727-2350, 1 생명위원회

순교자현양 신심미사 및 전국성지순례 안내
1) 순교자현양 신심미사
때: 매월 첫째주(화) 2월7일 · 3월7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 순교성지
집전: 원종현 신부(담당 사제)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2) 하루일정 전국성지순례 안내
때: 2월18일(토), 2월19일(일), 2월28일(화)
곳: 충남 아산 공세리, 남방제, 원머리공소, 솔뫼성지
신청: 2월6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에서 선착순 접수
회비: 1인 4만5천원(차량, 중식 제공)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미사
때, 곳: 2월6일(월) 10시30분~11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문의: 02)921-5094, 010-3732-5093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안내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 통해 사전 접수 / 현장 또는 온라인 중 선택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구역 반장 학교
대상: 구역장 · 반장
때, 곳: 3월3일~24일(4주간), 가톨릭회관 3층 강당
회비: 5만원(2월24일 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02)727-2063 사목국 교육지원팀

예비 신자 교리 대표 봉사자 교육
대상: 각 본당 예비신자 교리 대표 봉사자(본당별 2인 이하) / **회비:** 1만원(2월24일 마감)
때, 곳: 3월4일(토) 14시~17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02)727-2065 사목국 교육지원팀

본당 사목위원 생태교육
대상: 본당 사목위원 및 관심자
내용: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의 목표 및 실천 사례
때, 곳: 3월8일(수) 오후 7시, 가톨릭회관 205-2호
신청: 환경사목위원회 홈페이지(eco.catholic.or.kr)
문의: 02)727-2283, 2278(ecocatholic@daum.net)

2023년 가톨릭스카우트 홍보설명회
가톨릭스카우트 홍보설명회를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대상자께서는 신청서 작성 후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스카우트에 관심 있는 초 · 중 · 고 자녀를 둔 부모님
때, 곳: 2월23일(목) 19시 · 2월24일(금) 10시30분 · 2월25일(토) 14시 중(택1), 가톨릭청소년회관(혜화동)
신청방법: https://naver.me/GFes3RuP 접속 후 신청
신청기간: 1월29일(일)~2월20일(월)까지
문의: 02)762-9857 / (화~토) 8시~17시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봄학기 모집(성음악위원회)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접수 및 등록: 2월1일(수)~24일(금) / 3개월 수업(3월~5월)
곳: 최양업홀(전철 1 · 4호선 서울역, 2 · 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http://www.casm.co.kr)

봄학기	실기전문과정	오르간 · 피아노 · 반주 · 성악 · 합창지휘 · 작곡 · CCM · 관악기 · 현악기 · 바로크악기 · 국악
	앙상블	그레고리오성가(남 · 여) · 성악(남 · 여) · 플루트 · 현악 · 목관 · 리코더 · 클래식기타 등

인준단체 알림

모임

비대면 생활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돌깨생활피정' / 최영민 신부(예수회)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곳: 도쿄, 북해도, 가고시마, 나가사키
회비: 75만원 / 문의: 010-3645-9028 송진욱 신부

청년 몸 신학 피정(ICPE 선교회)
때: 2월24일(금) 20시~26일(일) 17시 / 회비: 15만원
곳: 마리스타 교육관(합정) / 문의: 010-5320-0419

반장·구역장·레지오 단원 1일 피정
곳: 살레시오회 교육관(신길동) / 수시 접수
문의: 02)828-3522 살레시오회 관구관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때: 2월22일(수) 19시30분 / 대상: 남녀 청년
곳: 명동대성당 영성센터 B401호 / 010-7197-1390

지리산 피아골 피정 / 문의: 010-3712-8119
유기종 신부의 고백성사, 강의
때: 2월24일~25일·3월9일~10일
출발: 전철 2·4호선 사당역 버스공영주차장 안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세~40세 청년 신자
때, 곳: 2월12일(일) 14시~17시, 평신도선교사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 문의: 010-3817-0567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2월24일(금)~27일(월)·3월10일(금)~13일(월)·3월24일(금)~27일(월),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삼성산 피정의 집 성령기도회 및 치유 대피정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사랑의성령봉사회

화요 성령기도회	매주(화) 18시30분~22시
치유 대피정	2월11일(토) 12시30분~17시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자연 피정·제주 면형의 집 피정센터

눈꽃산행	2월18일~21일, 2월24일~26일
자연순례	3월6일~8일, 3월18일~20일
성지순례	4월15일~18일, 4월29일~5월2일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주최)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2월25일(토)~26일(일), 3월4일(토)~5일(일)
3박4일	3월9일(목)~12일(일), 4월27일(목)~30일(일)
8박9일	2월10일(금)~18일(토), 3월20일(월)~28일(화)
40일	4월11일(화)~5월20일(토)

은총나눔기도회(도미니코 수도회)
인간적, 영적 성숙을 돕는 사람들과의 따듯한 동행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을 위해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문의: 010-6289-5013 조 미카엘라
때: 매월 둘째주(토) 오후 2시
곳: 도미니코 수도원(강북구 삼양로139나길 16-8)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반장
자연순례: 2월13일~15일·2월26일~28일·3월4일~6일·3월9일~11일·3월13일~15일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제주 자연 피정·제주 성 이시돌 피정센터

사순 시기 걷기 참가단 모집
스마트폰 내려놓고 기도하며 걷기(하루 6천보)
때: 2월22일(수)~4월9일(일) / 대상: 누구나
사순시기 매일 6천보 이상 걸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 증정
문의(접수): 010-3262-6823 또는 네이버카페 천주교스마트쉼문화운동본부 / 주최: 천주교 스마트쉼 문화운동본부(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교육

'다함께 성가를' 발성교실 / 문의: 010-9842-8818
가톨릭평화방송TV 이호중 교수 직강
곳: 시스피나음악원(주최, 신촌)

새천년복음화학교 영성교육
내용: 특강 및 미사 / 문의: 02)753-8765
주제: 하느님의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때, 곳: 2월5일(일) 13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7층

음악심리상담사자격 초급반
때: 3월9일~23일 매주(목) 13시30분~16시30분
곳: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CaFF영화제작워크숍 11기 수강생 모집
때: 3월8일~6월17일 매주(수) 19시~21시30분(15주)
접수: 홈페이지(caff.kr) 참조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설립 10주년 이벤트
내용: 수강료 할인(일반 2만5천원, 단과 1만원)
연중 다양한 이벤트는 홈페이지 참조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이콘연구소 21기 신입생 모집 / 문의: 02)313-9973
이콘제작 및 연구(3년 과정) / 대상: 65세 미만
개강: 3월2일 / 실기시험: 2월18일(토)·2월20일(월) 10시30분(택1), 가톨릭출판사(중구 중림로 27) 신관 6층

서울대교구 가톨릭 다도회 봄학기 회원모집
곳: 교육장(인사동) / 다도와 전통 예절 교육
문의: 010-8912-2640, 010-3226-6078

화요반	3월7일~5월30일 매주(화) 14시~16시(13주)
목요반	3월9일~6월1일 매주(목) 10시30분~12시30분(13주)

30대를 위한 신약통독(Zoom)
때: 3월~11월 (일) 16시~18시
회비: 3개월 12만원
지도: 프란치스코회(주최)
문의: 010-4598-6912

2023년 살레시오 여름신앙학교
접수: 2월8일(수) 10시부터 선착순
대상: 중·고등부 2차, 초등부 5차
일정은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 참조
문의: 062)373-0943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선교아카데미 제12기 교육생 모집
대상: 해외선교 및 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 / 회비: 95만원(식대 포함)
때: 3월2일~9월27일 매주(목) / 문의: 02)3673-2528
곳: 한국외방선교회(주최) 본부(성북동)

미국 가톨릭보딩스쿨연합(CBSA) 학교 설명회
때: 3월4일(토) 오후 3시(예약 필수)
대상: 초5~고2 / 약 10개 학교 참여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미국학교법인

2023년 상반기 수요덩굴내학당 모집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공식 성인인문학강좌
주제: 전쟁과 접속, 그리고 조선 사회의 변곡점들
때: 3월8일~5월17일 매주(수) 14시~16시
곳: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B1 명례방 / 회비 없음
2월8일(수)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yeyak.seoul.go.kr) 선착순 접수 / 문의: 070-4900-5378

예수회 이냐시오영성연구소 프로그램
내용: 하느님의 사랑과 나의 응답(영신수련 중심의 심화학습, 수행으로 초대) / 담당: 권효섭 신부
때: 2월21일(개강)부터 매주(화) 14시~16시(18주)
곳: 비대면 온라인 / 홈페이지: http://inigopress.kr
2월16일까지 선착순 접수
문의: 02)3276-7799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문화교실
개강: 3월7일(화)~9일(목) 강좌마다 다름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 재료비 별도
문의(접수): 02)6364-2204, 010-3781-2204(www.fec.or.kr)

광목에 들꽃 그리기	(화) 10시30분~12시(12회)	회비: 30만원
마음 챙김을 위한 글쓰기	(수) 10시~12시(10회)	회비: 20만원
유화교실	(수) 13시~16시(12회)	회비: 36만원
붓펜 캘리그라피	(목) 14시~15시30분(8회)	회비: 16만원
평생 함께할 내 묵주 만들기	(수) 13시30분~15시(6회)	회비 없음

성바오로 수도회 영성강좌
때: 3월2일(개강)부터 매주 / 미사 있음, 회비 없음

(화)	**바오로 서간(2학기부터 수업)** 10시~12시30분 / 010-9333-6260
	성서 입문 14시~16시30분 / 010-6293-2060
(목)	**마르코복음 강좌(예수님 수의와 함께)** 10시~12시30분 / 010-6287-9753
	성서 입문 14시~16시30분 / 010-6293-2060
(금)	**성시간(예수님 수의와 함께)** 10시~12시30분 / 010-6287-9753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모집

도미니칸 평신도회 회원 모집(재속회)
대상: 견진성사를 받은 만 63세 이하 성인 남녀
문의: 010-2740-1606 성소 담당

명동대성당 가톨릭여성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20대~40대 후반 여성 교우
때: 2월19일 13시 / 문의: 010-6303-1365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1964년 1월 이후 출생자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완료한 심신이 건강한 분
모집: 2월24일(금)까지 / 문의(접수): 02)2258-5781, 2

가톨릭합창단 2023년 상반기 신입단원 모집
대상: 20~50대 남녀 교우 / 010-3211-5195 문자 문의
오디션: 2월11일(토) 14시 / 가톨릭성가 또는 자유곡
명동대성당 홈페이지 단체모집 공지 참조

미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열린미사
때, 곳: 2월18일(토) 16시, 골롬반 선교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 문의: 02)953-0613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2)776-0457
군종신부 특강 및 군 복무중인 청년과 회원을 위한 미사
때, 곳: 2월6일(월) 14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와 성모신심미사
때: 둘째주(토) 2월11일 10시~13시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문의: 02)727-2489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세계병자의 날 미사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마르 1,41)
주례: 유경촌 주교와 사제단 공동집전
때, 곳: 2월11일(토) 오후 3시,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B3 콘솔레이션홀
문의: 02)3147-2402

안내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여성 전화 상담
심리, 가족갈등을 전화상담 해드립니다
상담·문의: 02)990-9366 (월~금) 10시~16시

인천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 교육 및 피정
청소년·청년·예비자·성인 위탁 및 자체 교육·피정 / 문의(접수): 032)465-0835
침묵·대월 기도 피정: 4월6일~9일·3월1일~5일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jscen.or.kr
전문심리상담: 개인심리치료, 가족심리치료(정서불안·우울·분노·소통과 관계의 어려움), 종합심리검사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뽈자비의수녀회)

까리따스 알코올회복센터 / 문의: 02)521-2364
가족이 술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알코올 중독 회복을 위한 주·야간재활 교육 및 의존자 가족교육과 자녀모임 상시 운영
때: 주·야간 운영시간 (월~금) 9시~17시, (화~목) 19시~21시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공황장애, 부부, 진로,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골롬반회, 심리학박사, 상담심리전문가 1급) / 문의: 010-9146-7654

직원모집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직원 모집
분야: 전산직(정규직 1명), 사료목록화(연구원 1명, 계약직) / 이메일(mano@cbck.kr) 문의
서류: 주교회의 홈페이지-알림마당-알림 참조
2월17일(금) 14시까지 접수

한누리아동센터(독립문역) 사회복지사 모집
분야: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정규직) 1명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명서 / 02)735-3633
채용시까지 이메일(hannuricenter@hanmail.net) 접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사무원 모집
분야: 입양사무 및 홍보 담당 1명(계약직)
대상: 사회복지사 1, 2급 자격증 소지자
접수 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모집 공고 참조 / 문의: 02)764-4741~3

포이동성당 사무원 모집
분야: 사무원 1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교우로 회계업무, PC(한글·엑셀) 가능하신 분 / 문의: 02)571-3251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 1월31일(화)까지 방문·우편(우 06783,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 5길 28) 접수

성수동성당 사무원 모집 / 문의: 02)497-2651
분야: 사무원 1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사무행정, 회계업무 및 PC(한글·엑셀 등) 사용 가능한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합격자 개별 연락)
채용시까지 사무실 방문·우편(우 04774, 서울시 성동구 성덕정길23 성수동성당 사무실) 및 이메일(kyeon@seoul.catholic.kr) 접수

자양2동성당 사무장 모집 / 문의: 02)444-8444
분야: 1명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
업무: 사무행정, 회계업무, 인사관리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2월15일(수)까지 이메일(cmike7c@seoul.catholic.kr) 및 우편·방문(우 05106,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 58길 81(자양동) 자양2동성당 사무실) 접수 / 서류는 채용 확정 후 안전하게 폐기하겠습니다

서울주보 게재 신청: http://cc.catholic.or.kr
교회에서 인가받은 단체만 게재 가능합니다.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가르멜 수도회	매월	수도원(서울)	010-2140-7414
마리아의 종 수녀회	2월12일(일)	분원(돈암동)	010-6826-6882
성 마리아 재속회	수시	양성소	02)980-0385, 010-6462-0385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2월18일(토) / 수시	수녀원(경기도 양주)	010-6625-0927
성심수녀회	2월18일(토) 14시~17시	용산구 원효로 19길 49	010-9284-0304
성심의 프란치스코 수녀회	수시	수녀원(서울)	010-8563-6875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2월12일(일) 13시30분~17시	본원(미아리)	010-9816-0072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한국외방선교수녀회	2월19일(일)	서울 분원(보문동)	010-9353-1773 김 토마스 수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성경, 내게 말을 걸다

배성연 지음
생활성서사 | 264쪽 | 1만5천원
문의: 02)945-5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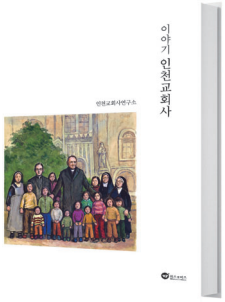
성경 묵상 글쓰기를 통해 마음을 치유해 주는 책이다. 심리학자인 저자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묵상한 글을 심리학 주제에 따라 정리했다. 살아온 인생과 내면을 말씀의 빛으로 되돌아본 저자의 진솔하고 생생한 치유 체험이 담겨 있다.

신간

The Blue Hole

HYUN HO 글·그림
성바오로 | 56쪽 | 2만원
문의: 02)945-2972

"우울은 슬픈 동시에 아름다운 이면이 있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우울감이 바다의 아름다움과 심해의 두려움과 같다고 생각했고, 그것들을 파란색 잉크로 표현했습니다." 작가가 우울함에 빠졌을 때 느꼈던 감정의 흐름과 어떠한 존재에게 위로를 받고 이겨 냈던 시간을 그린 그림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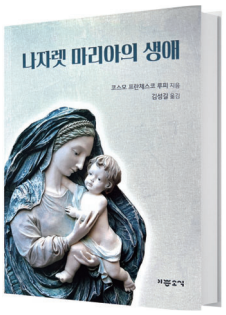


신간

이야기 인천교회사

인천교회사연구소 지음
위즈앤비즈 | 244쪽 | 1만5천원
문의: 031)986-7141

인천 지역의 신앙 공동체는 줄곧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왔다. 그 여정을 정리한 작업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교구사'라는 이름의 책들은 늘 두껍고 어려웠다. 이에 인천교회사연구소는 교회 구성원들 누구나 쉽게 다가갈 '공동체의 기록'이라는 차원에서 교회사를 기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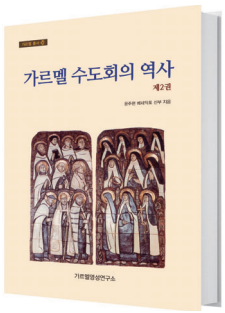


신간

나자렛 마리아의 생애

코스모 프란체스코 지음
기쁜소식 | 320쪽 | 1만5천원
문의: 031)762-1194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앎으로서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 또한 더 잘 알게 됩니다." 이 책은 성경과 성모님에 관한 교회의 거룩한 전승 자료들에 근거한 구세주의 어머니이시며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온 삶에 대한 귀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간

가르멜총서39

가르멜 수도회의 역사 제2권

윤주현 지음
가르멜영성연구 | 552쪽 | 3만원
문의: 02)762-1194

이 책은 지난 2020년에 출간된 가르멜 수도회의 역사 제1권에 이어지는 작품으로, 17세기 초부터 현재까지 가르멜 수도회의 역사를 각 분야별로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별히 맨발 가르멜 수도회의 역사 500년을 통틀어 시대별로, 수도회 별로 큰 영향을 미친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했다.

신간

청국장 신부의 코로나 일기

황창연, 박현민, 김영복 지음
기쁜소식 | 376쪽 | 2만원
문의: 02)762-1194

지구 환경이 점점 파괴되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건강한 먹을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생태마을의 사제들이 쓴 글을 모은 것으로, 성 필립보 생태마을이 지향하고 있는 건강한 삶과 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먹을거리, 그리고 생태마을은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 가톨릭성서모임 '성서 40주간' 수강생 모집

·강의기간 : 2월 2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
·강의장소 : 명동 교구청본관 401호
·수 강 료 : 80,000원
·접 수 : 2월 5일(주일) 대성전 앞 신청 부스
·문 의 : ☎ 010-5271-9700 (※문자 문의)

◉ 가톨릭성서모임 '성경그룹공부' 그룹원 모집

·요일/시간 : 3월 7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수요일 오후 7시
·강의장소 : 명동 범우관 교리실
·모집그룹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접 수 : 2월 5일(주일) 대성전 앞 신청 부스
·문 의 : ☎ 010-5271-9700 (※문자 문의)

◉ 가톨릭합창단 2023 상반기 신입단원 모집

·주요활동 : 주일 낮 12시 교중미사, 대축일 미사 및 서울대교구·본당 주요행사 성가 봉사
·대 상 : 성음악에 관심 있는 20~50대 남녀 교우
·오디션 일시 : 2월 11일(토) 오후 2시
·오디션 장소 : 명동대성당 문화관 3층 명례방
·오디션 곡 : 가톨릭성가 또는 자유곡 중 1곡
·지원방법 : 홈페이지→성당소식→단체모집 공지 참조
·문 의 : ☎ 010-3211-5195 (※문자 요망)

◉ 명동대성당 '성서백주간' 모집

본 모임은 백 주간에 걸쳐 구약, 신약 전체를 통독함으로써 하느님과의 만남을 통해 말씀을 생활화하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모 집 반 : 구약반 - 수요일 (오후 7시~오후 9시)
구약반 - 목요일 (오후 2시~오후 4시)
구약반 - 금요일 (오후 2시~오후 4시)
구약반 - 일요일 (오후 2시~오후 4시)
신약반 - 수요일 (오후 2시~오후 4시)
신약반 - 일요일 (오후 5시~오후 7시)
·개강미사 : 3월 4일(토) 오전 11시
·대면접수 : 2월 12일(주일) 11:30~13:30 / 15~17
·문자접수 : 2월 13일(월)~ 박 마리아(☎ 010-8914-7556)

※문자로 접수하실 때는 신청하시는 분의 이름·세례명·선택반(구약/신약-요일 표기) 필수 기재!

◉ 가톨릭여성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활 동 : 주일 오전 11시 미사, 매월 두 번째 주일 영세식 성가 봉사
·대 상 : 성음악을 사랑하며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는 20세~40세 후반 여성 가톨릭 신자
·오디션 일시 : 2월 19일(주일) 오후 1시
·오디션 장소 : 명동대성당 문화관 3층 명례방
·오디션 준비 : 자유곡, 지정곡 각 1곡씩 시창
·문 의 : ☎ 010-6303-1365

◉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1986년 창단된 한국 최초의 소년합창단 '명동대성당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대상 : 8세~12세 가톨릭신자 남아
·문의 : 자모회장 ☎ 010-8802-9003

◉ 2023년도 명동대성당 사순 특강

·시간/장소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 대성전

일 자	주 제 & 강 사
2월27일 (월)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루카 15,6) 가정과 이웃의 생명 지킴이 교육** 차바우나 (바오로) 신부님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사무국장·자살예방센터장 -
3월 6일 (월)	**소외됨 없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삶** 나충열 (요셉) 신부님 - 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
3월13일 (월)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마태 25,36)**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님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
3월20일 (월)	**선우경식 선생님의 꿈과 무료병원 요셉의원 이야기** 홍근표 (바오로) 신부님 - 요셉나눔재단법인 사무국장 -
3월27일 (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님 - 사회사목국 부국장·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

◉ 아미쿠스 주일학교 신입교사 모집

아미쿠스 주일학교는 미사를 참례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주일학교입니다.

·대상 : 세례성사를 받은 만 20세~만 40세 가톨릭 신자
·주요활동 : 주일 오전 10시 아미쿠스 주일학교와 함께 하는 미사, 미사 후 교리 등
·모집기한 : 2월 26일(주일)까지
·문의 : mdsd.amicus@gmail.com (※메일로 연락 요망!)

◉ '봉사뱅크' 상설 고해소 봉사자 모집

·대상 : 가톨릭 교우 (예비신자도 환영합니다!)
·활동 : 상설 고해소 안내 봉사 (평일 & 주일 오후 시간대)
·봉사시간 확인 : 카카오톡 친구 검색 ☞ 봉사뱅크
·신청/문의 : 봉사뱅크 고해소 봉사 담당 ☎ 010-3668-5039 (※문자로 문의 요망!)

◉ 명동대성당 영성교육

강좌명	수업일시	등 록 수강료	문의처
오르간	매주 목요일 10:00-16:00 (개인강습+연습)	매 월 15만원	본당 사무실 02-774-1784
전 례 꽃꽂이	매주 금요일 10:00-13:00 (고급반) 매주 금요일 13:00-14:30 (기초반)	3개월 7만5천원	담당강사 010-5302-4593
수 어	매주 목요일 19:00-21:00	6개월 12만5천원	에파타 성당 02-995-7394

※전례꽃꽂이 강좌는 수강료 외 재료비 별도입니다.
※수어 강좌는 수강료에 교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774-1784(대)
753-1784(FAX)
본당 연령회
010-6375-1784

천주교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신부
수석부주임 이길재(베 드 로)신부
부 주 임 심승우(마르티노)신부
부 주 임 조인기(암브로시오)신부
보 좌 김주신(멜 키 올)신부
보 좌 김영우(스테파노)신부
보 좌 리백진(파비아노)신부

미사 성가	입당 : 24	봉헌 : 215, 340, 212	성체 : 163, 156, 496	파견 : 437

《 수녀님 인사이동 》

금번 인사이동으로 **권 아가다 쟌 원장 수녀님**, **서 엘리사벳 씨튼 수녀님**, **이 릿다 수녀님**께서 이임하시고, 새로 **손 벨라뎃다 원장 수녀님**, 청년 담당 **이 아가다 수녀님**, 전례 담당 **이 젤뚜루다 수녀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재임하신 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동하신 수녀님들의 영육 간 건강을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예비신자석 별도 마련 안내

2월 19일부터 주일 낮 12시 교중미사와 **주일 오후 6시 미사**에 예비신자석이 다시 마련될 예정입니다. 교리를 마치고 예비신자들이 함께 전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재의 수요일 》

2월 22일(수)은 「**재의 수요일**」입니다. 이날부터 속죄와 보속의 사순 시기가 시작되며, 당일 모든 미사 중 이마에 재를 얹는 예식이 있겠습니다. 예식 준비를 위해 2022년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받아 가신 **성지(聖枝)**를 **2월 19일(주일)까지** 본당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 2월 예비신자 교리반

2월 교리반 입교 시 세례성사는 8월에 거행되며, **2월 5일(주일) 오후 2시 교구청 본관 501호**에서 있을 **예비신자 환영식**에 오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리반	시 간	장 소	강 사
금요반	오후 7:30	교구청 본 관 401호	조인기 (암브로시오) 신부

- **6개월 과정으로 매주 2시간 수업, 미사 참례 필수**
- **준비물 : 등록비 2만원, 반명함판 사진 1매**
- **첫 수업일 : 2월 10일(금)**

◉ 연령회 월례회의

·일시/장소 : 2월 12일(주일) 오전 11시 / 꼬스트 홀

◉ 새 신자를 위한 후속교육

명동 예비신자 교리학교에서는 세례 받은 신자들을 위해 분기별로 4주간의 후속교육을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 1분기(2월) 후속교육이 아래와 같이 진행되오니 새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교육일정		교육주제
1주차	2월21일 (화)	하느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 - 전례 -
2주차	2월28일 (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 성경과 기도 -
3주차	3월 7일 (화)	성사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삶 - 성사 -
4주차	3월14일 (화)	참회예절과 고해성사

·시간/장소 : 오후 7시 30분~9시 / 교구청본관 401호
·교육대상 : 최근 1년 이내에 세례 받은 신자
·신청방법 : 1주차 교육일에 강의 장소에서 현장 접수
(※사전 신청 불가 & 추가 접수 없음!)

◉ 불우이웃돕기 기금 마련을 위해 진행한 설맞이 떡국용 가래떡 판매에 성원해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익금(8,363,000원)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1/23-1/29).....24,744,130
- 연중 제 4 주일 헌금.....33,288,000
- 해외 원조 주일 2차 헌금.....11,167,000
- 감사헌금 (1/23-1/29).....729,000

김 발렌티노 / 김 베로니카 / 류 헤드비제스
문 비르지다 / 박 안젤라 / 박 프란치스코
이 리베라도 / 이 힐데가르트 / 임 사무엘
최 로사

미사 (Mass)

주일미사 (일요일)	대성당	오전 7시, 오전 9시(영어미사), 오전 10시(아미쿠스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미사), 오전 11시, 낮 12시(교중미사), 오후 4시, 오후 5시, 오후 6시, 오후 7시(청년미사), 오후 9시	
주일미사 (토요일)	대성당	오후 6시, 오후 7시(늘푸른청년미사)	
평일미사	대성당	월	오전 7시, 오후 6시
		화-금	오전 7시, 오후 6시, 오후 7시
		토	오전 7시
성지미사	대성당	월-토	오전 10시

유아 세례 (Baptism of Infants)
매월 첫째 주일 오후 1시 30분 (※직전 금요일까지 접수)

고해성사 (Confession)

한국어	토-일	오전 10시 - 오후 8시		
	화-금	오전 11시 - 오후 8시		
	월	오후 1시 - 5시 (성직자·수도자 대상) ※일반신자는 다른 요일을 이용하십시오.		
영 어	주일	오전 8시 30분 - 8시 50분		
	금	오후 4시 - 6시	토	오후 3시 - 5시